

Vannoy, J. R.
1978 *Covenant renewal at Gilgal*, Cherry Hill : Mack Pub.

Weber, Hans-Ruedi
1971 "The promise of the land", *Study Encounter*, 7(no. 4) : 1-16.

브루거만, W.
1992 성서로 본 땅, 강성열 옮김, 나눔사.

이병렬,
1987 에레쯔 이스라엘 : 히브리민족, 땅의 역사와 그 의미, 요단출판사.
1985 히브리 민족의 원역사, 페트라성경원어연구원.

라이트, 크리스토퍼 J. H.
1989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정옥배 역,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IVP).

카이저, W. C.
1989 새롭게 본 구약, 김의원 역, 도서출판 바실래.

최의원
1986 구약논문집, 기독교문서선교회.

한경건
1986 "멜기세덱 : 11QMe1과 히브리서의 비교연구", in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 한석 오병세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7 *The reatoration of Israel in covenant perspective*, Th D. Thesis, Potchefstroom University.
1990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종말론 강해, 기독교문서선교회.

성령으로 세례베푸심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Baptizing In The Holy Spirit -

김 경 철 조교수

目 次

I. 서 論(序論)

1. 본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전제(前提) 및 접근 방법(方法)

II. 본 論(本論)

1. 신약성경에 나타난 세례(洗禮)
 - 1-1 요한의 세례
 - 1-2 기독교 세례
 - 1-3 예수 그리스도의 수세(水洗)와 성령(聖靈)
2. 사도행전과 고전 12 : 13에 나타난 성령세례
 - 2-1 2 : 1-39 오순절 성령세례
 - 2-2 8 : 4-24 사마리아에서의 성령세례
 - 2-3 10 : 44-48 고넬료 가정의 성령세례
 - 2-4 19 : 1-7 에베소 지역 제자들과 성령세례
 - 2-5 고전 12 : 13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3. 성령으로 세례베푸심-특성(特性)
 - 3-1 새 언약시대의 한 특징으로서의 성령세례
 - 3-2 보편적 축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서의 성령세례
 - 3-3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으로서의 성령세례
4. 오순절주의의 "성령세례"-재조명(再照明)

III. 결 論(結論)

I. 서론

1. 본 연구의 의의

교회사를 회고해 볼 때 각 시대마다 그 시대 특유의 관심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논쟁에 열중하였던 초대교회가 있는가 하면 중세의 막강한 교권에 대항하여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했던 종교개혁가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일으켜 세운 교회에 회미해져 가는 생명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대를 회복(回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몸부림이 있어 왔다.

생명력이 약해져 삭막한 오늘의 교회를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로 돌이키고자 노력하는 자들의 시야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다. 술한 고난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능력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종들의 한 이상(理想)이 되었으며 이런 초대교회로의 회복(回復)은 현대 교회의 허약한 모습을 애태우며 바라보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교회의 부흥을 염원하는 이들은 초대교회 부흥의 원천을 성령의 역사에서 파악하였다. 초대 교회의 귀감적 모습에서 그들은 현재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곧 성령의 능력이라고 결론 지었다.¹⁾

1960년 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령논쟁이 교회의 최대 이슈가 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령논쟁이야말로 현대교회의 최대의 쟁점, 최대의 분쟁요소²⁾가 되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성령님에 대해, 특히 성령으로 세례베푸심³⁾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들은 뭉치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고신 교회내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안건⁴⁾으로 등장하여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성령님의 사역 특히, “성령세례” 문제가 이론과 목회 현장의 정면에 뛰어 들어오며 따라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해답이 없이는 부흥은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한 교회 내의 상처는 치유될 길이 없다.

성경 진리 위에서 교세의 확장을 꿈꾸고 있는 고려과 교회⁵⁾로서는 성령론에 대한 성경적 재검토는 당위성이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객관타당한 연구 결과에 따라 교회는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거나 아니면 방향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것은 교회

1) 박정근, 오순절신학(서울: 복음출판사, 1978), p. 20. 또는 Samuel Chadwick, 한모길역, 성령을 믿느냐(The Way to Pentecost)(서울: 성광문화사, 1976), p. 1-12, 88-90에서 성령에 관심없는 교회는 분위기가 싸늘하고 생명력이 없으며 “성령없는 그리스도교는 절망의 캄캄한 묘역(墓穴)”이며 오늘날 신자나 교회가 능력없는 이유를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2) Richard Gaffin, 권성수역, 성령은사론(Perspective on Pentecost)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3), p. 9.
 3) 필자는 본 고(稿)에서 ‘성령으로 세례베푸심’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논문에서 차차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어떤 한 가지 표현을 고집함 없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했음을 미리 밝혀 둔다.
 4) 1992년 제 42 회 정기총회에서 성령론문제가 중요한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5) 1992년 제 42 차 총회석상에서 새 총회장에게 피선된 박유생목사는 취임사에서 고신교회의 연내 획기적 성장을 강조하였다.

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성경속에서 말씀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 한 분 뿐이기 때문이다.

2. 연구의 전제(前提) 및 접근 방법(方法)

위에서 제시한 연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전제를 설정하였다. 필자는 다음의 다섯가지 전제 위에서 본 연구에 임하였다.

그 전제 가운데 첫째는, 오늘날도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자유(自由)에 대한 필자의 확신이다.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⁶⁾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의 확신 곧,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⁷⁾는 확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자유는 허구(虛構)가 아니라 사실(事實)이며 실제(實際)이다. 이 실제적(實際的) 사실(事實)에 내포된 약속과 아울러 성령님이 현재도 교회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확신에 찬 기대가 시종일관 필자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두번째, 필자가 확신한 것은 개인주의(個人主義)와 주관성(主觀性) 곧, 개인적 경험(經驗)이 기독교 교리로 일반화(一般化)될 수 없다는 개인적 신념(信念)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유일한 참조점으로 삼았다. 진리(眞理)의 상대성(相對性)을 역설하는 현시대의 비규범적(非規範的) 경향(傾向)을 철저히 배격하여 본 논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객관적으로 말씀해 오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에서 절정에 이르렀으며 성경은 진리(眞理)를 규명할 수 있는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그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견해나 교회적 전통, 우리의 경험등은 모두 성경이라는 표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증(檢證)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확신이다.

세번째 전제는 그리스도 중심성(中心性)이다. 비록 본 논문이 성령에 관한 것 일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잠시도 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⁸⁾시며 교회의 머리이다.⁹⁾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며¹⁰⁾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며¹¹⁾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그의 탁월성과 충족성에 대한 감탄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中心)에 영원히 계시도록 해야한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의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¹²⁾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실제 삶에서 구체화(具體化)되어야 한다.

네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다양성(多樣性)의 하나님이시라는 필자의 확신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되 종류대로 만드셨다.¹³⁾ 신자들은 자기들이 신앙하는 이 다양성(多樣性)의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다양한 형태와 정도의 영적 경험과 은사들을 제각기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6) 요한복음 16: 13
 7) 디모데후서 2: 9
 8) 골로새서 3: 11
 9) 골로새서 1: 18
 10) 골로새서 1: 18
 11) 골로새서 2: 9
 12) 빌립보서 2: 12
 13) 창세기 1: 25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神祕)¹⁴⁾라는 사실에 대한 동의이다. 이 점이 성령님에 대한 연구결과가 그렇게도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유이다.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존재(存在)하시는 분, 소리는 들으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지¹⁵⁾ 알 수 없는 성령님의 신비(神祕)에 대한 가슴설레임이 필자가 본 논문을 집필하는 데 자극제가 되었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자는 오직 성경만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개혁주의 성경 해석론(Sola Scriptura)을 철저히 고수했다. 따라서 기술적(記述的) 본문에 대해서는 이를 우리의 모범(模範)으로 일반화(一般化)하기 전 먼저 교훈적 본문이나 성경의 기본 진리에 비추어 걸르는 작업을 우선 시도하였다. 성경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 성취를 기다리고 성경의 명령에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나 성경속에 나타난 사건을 전부 우리의 모범(模範)으로 삼을 수는 없다¹⁶⁾는 것이 필자의 본 논문을 집필하면서 시종일관 유지한 성경 해석방법이다.

사도바울의 육체의 병과 그의 세 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모범(模範)이 될 수 없듯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그 특수상황을 고려함 없이 바로 그것을 20세기 신자들의 현재의 삶(here & now)에 바로 접맥시킬 수는 없다는 확신이다.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 자칫 부정적 관심으로 나타나 보일지 모르나 필자의 의도는 오히려 그 반대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세속화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더 큰 능력,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주의 종된 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어찌하든지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부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오늘날 최대 논쟁거리로 등장한 이 “성령세례”와 관련한 본 연구를 하도록 박차를 가하였다.

II. 본 론(本論)

1. 신약성경에 나타난 세례(洗禮)

1-1 요한의 세례

우리는 βαπτισμα¹⁷⁾로 표현되는 기독교 세례의 기원을 세례요한의 사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¹⁸⁾ 비록 그의 세례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쿼란 공동체의 영향이 스며있는 것¹⁹⁾이기는 해도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기독교 세례의 최초 설립자는 분명 세례요한²⁰⁾이다.

- 14) Abraham Kuyper, The Work of the Holy Spirit(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9), p. 6.
- 15) 요한복음 3 : 8
- 16) John R. W. Stott, Baptism & Fulness :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oday(Illinois : Inter Varsity Press, 1975), p. 15.
- 17) W. E. Vine, The Expanded Vine's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Minneapolis : Bethany House Publishers, 1984), p. 89와 Machael Green, Baptism : Its Purpose, Practice & Power (Down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1987), p. 126.
- 18) J. D. Douglas, et al, New Bible Dictionary (Wheaton : Inter-Varsity Press, 1987), p. 121. & Merrill C. Tenney, Pictorial Bible Dictionary(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7), p. 96.
- 19) Douglas, op. cit., p. 22.
- 20) Lawrence O. Richards, Expository Dictionary of Bible Words(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5), p. 100.

유대광야에서 의(義)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의 사역을 성경은 “회개의 세례”²¹⁾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죄사함”²²⁾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이처럼 세례요한의 세례는 용서 자체보다는 용서 받는 길²³⁾을 제시할 따름이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대속적(代贖的) 부활(復活)을 통해서만 그 의미와 효력을 갖게된다.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은 자들의 경우 세례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이 십자가상에서 그들의 죄를 실제로 사(赦)해 주시지 않았다면 세례요한의 세례는 전혀 무의미해지고 마는 것이다. 만일 그의 세례가 가리키는 길이 실제(實際)가 아닐 경우 그의 세례는 실상(實像)이 결여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요한의 세례(洗禮)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구약의 정결의식이 시사하는 씻음이나 정결의 의미²⁴⁾가 그의 세례(洗禮)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洗禮)에는 유대교의 의식(儀式) 한계를 초월하는 한 새로운 의미 곧, 윤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자신에게 세례(洗禮)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임박한 진노를 피라하”²⁵⁾는 강한 권면의 메세지속에서 그는 수세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속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경건에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요한의 세례(洗禮)에 내포된 윤리적 색채에 집착한 나머지 이 요한의 세례(洗禮)를 승천 직전 제정하신 예수님의 세례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요한의 세례는 그의 사역의 특징과 유사하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의 사역이 예비적, 과도적 특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세례 역시 이런 과도적, 예비적, 도입적 성격²⁶⁾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가 요한의 사역 내용과 사명을 예수님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듯이 요한의 세례도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동일시될 수 없다.²⁷⁾

동시에 세례요한의 세례는 다분히 상징적(象徴的)²⁸⁾이다. 이런 상징성(象徴性)은 그가 세례와 관련하여 사용한 강한 심판의 언어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사용한 선명한 언어들에 근거로 분석할 때 그 심판은 키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것²⁹⁾으로 나타나거나 성령과 불세례³⁰⁾와 같은 형태로 다가올 것이다. 그는 이런 강한 심판의 멧세지를 구약³¹⁾에서 취하여 여기에 쿼란 공동체적 색채를 가미³²⁾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의 흐름에 비유한다면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의 심판행위는 그런 흐름속에 빠지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앞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회개의 한 표현형식으로 심판을 상징(象徴)하는 세례에 자신의 몸을 맡겨버리는 자들은 그 세례 자체가 이미 정결케하고 깨끗이 씻는 한 심판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뒤에 오시는 분의 맹렬한 불세례를 경험하게 되고 열매없는 나무나 죽정이처럼 그 불에 타버릴 것이 분명하다.

1-2 기독교 세례

- 21) 누가복음 3 : 3, 사도행전 13 : 24, Douglas, op. cit., p. 122.
- 22) 마가복음 1 : 4, 누가복음 3 : 3에는 요한 세례의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eis”를 사용하고 있다.
- 23) Machael Green, op. cit., p. 126.
- 24) Tenney, op. cit., p. 96.
- 25) 마태복음 3 : 7-8.
- 26) John Murray, Christian Baptism(Phillipsburg :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m 1980), p. 1-2.
- 27) Ibid.
- 28) Douglas, op. cit., p. 122.
- 29) 마태복음 3 : 12.
- 30) 마태복음 3 : 11, 누가복음 3 : 16.
- 31) Douglas, op. cit., p. 122.
- 32) Ibid.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를 통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된다. 세례는 과거의 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채 죄인의 상태에 있던 자아(自我)에 대한 죽음을 의미한다. 물이 나를 덮을 때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함께 묻어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물결을 헤치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물에서 나와⁵⁰⁾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그분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된다.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양식(存在樣式)의 삶을 살도록 명령한다. 우리는 죽음의 물결에서 새로 살아난 새 피조물로서 존재해야 한다.

또한 이 죽음은 우리의 의지와 야망에 대해 사형선고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받음의 진정한 의미이다. 수많은 욕망과 시련 앞에서 세례가 죽음을 통한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참으로 인식하는 자는 이런 시험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승리하셨기에 나도 매일의 삶을 점진적인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다. 세례는 죄 용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¹⁾

신자의 삶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이다. 세례는 ‘오라 그리고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에 대한 철저한 충성의 서약이다. 세례는 내주(內住)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죄의 죽음에서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다. 신자의 전체 삶은 세례속에 전부 함입되어 있다.⁵²⁾ 신자의 삶은 세례와 관련된 삶이다. 그 삶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사는 삶이다. 그 분 자신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성도에게 이런 삶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다. 신자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벧전 2:24)사는 자이다. 세례를 통하여 개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⁵³⁾ 그리고 또한 이 세례의식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을 동시에 듣게 된다. 세례시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救援)과 철저한 순종(順從)에의 요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다.

1-3 예수 그리스도의 수세(受洗)와 성령(聖靈)

성령으로의 세례란 우리의 주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요한과 초기 기독교 세례 다음으로 우리가 고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음의 의미를 정확히 규명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제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마 3:11)으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거치지 않는 불에 태우시”(마 3:12)는 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는 대체로 다음의 몇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50) Tenney, op. cit., p. 97. 여기서 Tenney는 세례의 3가지 유형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수세와 관련하여 침례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51) Ibid.
52) Green, op. cit., p. 50.
53) Ibid.

1. 죄인의 대리자(代理者)

세례받기를 자청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 요한의 당황함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마 3:14)라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자신이 배푼 세례가 “죄사함”(막 1:4)을 받게하는 회개의 세례이기에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망설이는 세례요한 앞에서 주님은 세례받기를 자원하시고 세례가 “모든 의(義)를 이루는”(마 3:15) 한 수단임을 지적하신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는 하나님의 의(義)의 규정 앞에서 실패한 우리들, 에덴동산에서의 범죄(犯罪)로 인해 죽음과 심판이 작정된 죄인(罪人),⁵⁴⁾ 그러기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 버린 자들을 위해 주님은 죄인들을 위한 세례현장에 우뚝 서 계시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비록 세례에 참여하나 그 세례 자체도 하나의 상징물일 뿐 실제(實際)는 아니기에 나의 대리인(代理人)으로서 하나님의 의(義)를 다 이루시기 위해 그 분은 철저히 인간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⁵⁵⁾ 박윤선목사는 예수님의 세례를 “죄인의 대리자로서 의를 성취하시는 걸음”⁵⁶⁾이라고 지적하셨다. 예수님은 요한의 실체(實體)를 부여하시기 위해, 죄사함의 세례를 상징이 아닌 실제(實體)로 만드시기 위해, 참된 죄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완전 결합하셨다. 테니는 이를 “그의 인격, 사역을 통한 구속사적(救贖史的) 의미(意味)와 연결”⁵⁷⁾시키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받으신 예수님의 수세(受洗)의 연장선상에서 늘 포착되는 갈보리에서 일어난 한 놀라운 사건을 같이 분석하여야 한다. 사실 몇 년 뒤에 일어난 갈보리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수세(受洗)는 실제없는 상징물에 불과했을 것이다.

수세(受洗)는 Green의 말대로 “갈보리의 예행연습”⁵⁸⁾이었다. 요단강변 세례현장에서 물세례를 통해 죄인들과 같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참혹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실제로 사(赦)하실 수가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례를 이런 맥락에서 파악하셨음이 분명하다.⁵⁹⁾ 갈보리 십자가는 그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상징적으로 짊어지셨던 세상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신 곳이다. 구약에서 예언⁶⁰⁾하던 새 언약시대의 두 가지 특징 중 첫번째인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곳이 요단강 물의 현장이었고 실제로 성취된 곳이 갈보리 피의 현장이었다. 이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불세례를 자신이 감당하셨다.⁶¹⁾ 이 갈보리 십자가 형틀에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완전히 만난다.⁶²⁾ 요한의 세례가 가리키는 죄의 용서를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 그분은 요단강변에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이다.⁶³⁾

2. 성령의 기름부음

새 언약시대의 특징을 구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

54) 히브리서 9:27
55) S. G. De Graaf, Promise and Deliverance(Ontario: Paideia Press, 1981), p. 18.
56) 박윤선, 공관복음 주석(서울: 영음사, 1980), p. 117.
57) Tenney, op. cit., p. 96.
58) Green, op. cit., p. 39.
59) Ibid.
60) 예레미야 31:31-34, 32:38-40, 겔 36:25-27
61) New Bible Dictionary, op. cit., p. 122.
62) 갈로새서 2:11-15. Michael Gree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p. 131.
63) Green, op. cit., p. 39.

예레미야 31 : 31-3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앞이나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에스겔 36 : 25-27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구약성경의 최대의 약속이 성취된 후 신약성경의 최대의 약속은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⁶⁴⁾이다. 모든 믿는 자 위에 보편적으로, 또 한량없이 주어질⁶⁵⁾ 성령의 임하심이 새 언약시대의 특징⁶⁶⁾이다. 요엘 선지자는 새 언약시대에 이루어질 성령님의 한 없는 시혜(施惠)를 예언하고 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⁶⁷⁾ 성령이 임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⁶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⁶⁹⁾ 이 축복이 구약예언자들이 예언한 새 언약시대의 특징이요 구원의 적극적 의미⁷⁰⁾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힘을 제공⁷¹⁾하시며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게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새 언약시대의 가장 귀한 특징이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주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는 영원히 사라졌다. 이 사실은 세례시 성령님이 임하신 의미를 예수님이 친히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수세(受洗) 직후에 있는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한 회당에서 낭독하신 이사야 본문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던 수세(受洗)의 가치를 규정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⁷²⁾ 이사야 본문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신원의 날”(61 : 2)이라는 대목을 고의로 제외

64) Owen, op. cit., p. 29.

65)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 The Acts of The Apostles 1-13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p. 57-58에 의하면 “At Pentecost The Holy Spirit was given more extensively than previously—‘on all flesh’, and also more copiously than before—He was ‘He was poured out’”.

66) Stott, op. cit., p. 245와 Charles R. Erdman, The Spirit of Charles R. Erdman, The Spirit of Christ (New York : George H. Doran Company, 1926), p. 76.

67) 요엘 2 : 28-29.

68) Eric S. Fife, The Holy Spirit : Common Sense and the Bible(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p. 67.

69) 요한복음 14 : 16-17.

70) Owen, op. cit., p. 128.

71) 로마서 8 : 4.

72) 누가복음 4 : 18-19.

시키셨다.

성령이 임하신 이 수세(受洗)의 자리, 이 순간 이후부터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이 성령시대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시대이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러갔다는 것이다. 개편교수는 성령시대를 “축복의 시대”⁷³⁾라고 규정하였다. 개편교수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요한의 예비사역이 실제로 성취되어 나타난 성령과 불세례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면서⁷⁴⁾ 이를 종말론 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 요한에 의하여 약속된 메시아 세례가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 자신이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뒤이어 성령을 받으신 사건이 선행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불세례가 오순절에 마침내 실현되었는데 이것이 메시아 백성에게 심판세례가 아니라 축복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메시아 자신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주로서 먼저 그들과 동일시되어야 하며 또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야 했는데 그들이 받아야 할 이 진노와 정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들보다 먼저 세례받으시고 먼저 그들 위에 덮여 있는 저주를 제거하셔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다.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으신 이 사건을 계기로 신약시대 모든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다시 저주가 없는 것이다.⁷⁵⁾

죄의 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⁷⁶⁾시키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의미하는 이 참된 구원의 첫 메아리가 요단강 예수님의 수세(受洗)현장에서 크게 울려 퍼졌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⁷⁷⁾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위에 임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라”(11 : 2)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메시아 시대가 하늘에서부터 선포된 것이다. 오셨다가 다시 떠나가셨던 구약적 방식⁷⁸⁾과는 달리 예수님의 수세(受洗)시 임하셨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위에 영원히 머무셨다.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한 복음서에서는 특히 “임하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세례요한은 수세시 성령님이 임하신 장면을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εμεινεν)”(요 1 : 32)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능동태 현재형으로 된 이 단어(εμεινεν)는 동작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세시 예수님은 성령을 영원히 받으셨다. 수세시 성령님의 구약의 예언과 같이 오셨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수세(受洗)는 성령님의 영원임재가 우리에게 제공된 성례식이었다.⁷⁹⁾ 예수님의 세례식은 성령님의 영원임재를 그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새 언약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자기 위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후 그분은 요한의 예언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베푸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John Stott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베푸시는 분”으로 그의 사역을 규정짓고 있다.⁸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으로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고⁸¹⁾ 우리에게

73) Gaffin, op. cit., p. 16.

74) Gaffin, op. cit., p. 15.

75) Op. cit., p. 16-17.

76) Kay Arthur, 프리셋트 성경공부, 하나님의 은혜 p. 150.

77) Gaffin, op. cit., p. 18-19에서 요단강사건과 오순절사건을 평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78) 시편 51 : 11에서의 저자의 간구(懇求)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등이나 사울왕이나 사사기의 삼손의 경우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79) Green, op. cit., p. 40.

80) Stott, op. cit., p. 23.

81) 요한일서 2 : 20, 27.

게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경우와 같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⁸²⁾

3. 아들되심의 확인

예수님의 수세(受洗)의 두번째 특징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위에 임하심과 동시에 하늘에서부터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마 3:17)라는 음성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탄생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의 이 세례 현장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되심이 하늘로부터 공적으로 선포되었다. 우리와는 달리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적자(適者)⁸³⁾이심이 수세(受洗)의 현장인 요단강 상공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수세(受洗)의 현장에서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자(요 1:33)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요 1:33)이며 이 “성령으로 세례주시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성령이 임하신 것과 아들이심에 대한 확인은 상호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다. 하나님의 순환구조로써 하나님의 적자(適者)였기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었다. 영원한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된 그분은 요한의 말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베푸시는 분”으로 다가오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례와 함께 양자의 특권도 주신다. 이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⁸⁴⁾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들에게 그분은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주셨다.

물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강림과 아들되심의 이 확인사건이 핵심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수세(受洗)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과 양자됨에 관계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로마서 8:15)

요단강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식을 통해 성도는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세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분이 붙여주시는 자녀의 명칭을 거저 얻게 되는 것이다.

4. 고난받은 종의 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마 3:17)라는 하늘의 음성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수세(受洗)의 현장에서 계시는 것이다. 그분의 사역의 특징을 이루는 종의 모습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⁸⁵⁾하는 이 요단강에서부터 선포되고 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은 시편⁸⁶⁾이 가리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인간 왕들을 월등히 능가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신⁸⁷⁾ 왕중의 왕

82) 요한복음 14:16-17.

83) 김세운, 예수와 바울(서울:도서출판 참말, 1993), p. 18에서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이사야 42장 1절과 시편 2장 7절의 혼합인용으로 “너는”이 강조되어 앞에 나오고 ‘사랑하는’이라는 등식어가 본래의 의미를 넘어서 ‘유일한’의 의미를 지니게 되어 이 예수야 말로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더 독특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지닌 아들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84) Green, op. cit., p. 41.

85) Charles C. Ryrie, The Holy Spirit(Chicago: Moody Press, 1965), p. 45이하.

86) 시편 2:7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7) Green, op. cit., p. 41.

이셨으며 동시에 이사야의 지적-“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42:1)-처럼 종으로 오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 수세(受洗) 현장에서 그분은 아들로서의 신분(身分)과 종으로서의 사명(使命)을 동시에 듣고 있는 것이다.⁸⁸⁾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친아들이심이 선포되는 이 놀라운 메시아 선포식에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절정을 이루는 고난받는 종의 낮아지신 모습을 동시에 보는 것이다.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에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이상(理想)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개념과 “싫어버린 바”(사 53:3)된 가장 비천한 종의 개념이 결합⁸⁹⁾되어 있는 것이다. 세례의 현장에서 들린 이 음성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셨으며 예수님의 세례는 한 마디로 그분의 종의 사역이 극명하게 드러난 십자가를 예표⁹⁰⁾하고 있다. 아들이신 그분은 고난의 길, 종의 길을 가셔야만 했다.⁹¹⁾ 수세(受洗) 현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⁹²⁾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기신 종의 사명(使命),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⁹³⁾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세(受洗)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우리의 사명(使命)을 발견하게 된다. 고난의 길을 가야만 되는 아들에게서 우리 역시 그분의 제자⁹⁴⁾로서 그분의 뒤를 따라 고난의 길을 가야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아들되심이 고난받는 종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이 예수님의 수세(受洗)에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5. 사역(使役)에의 부르심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 그분이 취하신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수세(受洗)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세례시 임하신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무서운 시험을 겪게 하신다.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거나 그것은 스승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치신 그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시험받는 장소로 인도하셨던 것이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면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다.⁹⁵⁾

광야에서 돌아오신 주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주님이 하신 사역의 진면목이다.⁹⁶⁾ 누가는 수세(受洗)시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분명하게 구약의 예언으로 설명하고 있다.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주님은 고향 나사렛을 돌아가 한 회당에서 안식일날 이사야의 글을 읽고 그 글이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88) Green, op. cit., p. 46.

89) Green, op. cit., p. 42.

90) 누가복음 12:50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자신의 세례라고 표현하셨다.

91) 누가복음 10:45.

92) 에베소서 1: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93)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변화산 사건에서 다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다.

94) Douglas, op. cit., p. 122에서 그의 기쁨부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로 인해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95) Green, op. cit., p. 42.

96) Robert E. Coleman,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Old Tappan: Fleming H. Revell Company 1988), p. 66-72.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⁹⁷⁾

이사야 본문의 의미처럼 주님께 임하신 성령님은 복음 전파의 영(靈)이시며 선교의 성령(聖靈)이시다.⁹⁸⁾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식에서 주님이 받으신 사역의 내용이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자녀로서 이땅에서 종의 삶을 영위해야 할 우리의 사역 내용이기도 하다. 선교의 성령께서는 주님에게 즉각 복음전파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⁹⁹⁾토록 하셨던 것이다. 성령 임하심과 복음전파의 사역은 동기요 목적이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전파의 사역으로 이끄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6. 하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을 통하여 기독교 세례의 분명한 모습이 드러난다. 주님의 수세(受洗)는 성령의 보증¹⁰⁰⁾이며 아들되심의 표시이다. 동시에 이는 고난받는 종으로의 부르심이며 사역에의 위임이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하여 세례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먼저는 요단강에서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가 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친히 우리를 대표하여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물세례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불세례로 그분을 인도하셨다. 십자가상의 이 세례의 자리에서 그분은 세상의 죄를 실제로 전부 담당하시고 죄인들에게 칭의를 선포하셨다. 마지막으로 그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받으셨을 때 그에게 임하여 그의 사역의 길로 인도하셨던 성령님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복음전하는 자로 무장시켰던 성령님의 세례가 된다.

신자는 세례를 통하여 이 세 가지의 경험을 겪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회개의 물로 내려 간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칭의를 덧입는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Michael Green의 말처럼 한 세례 안에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것¹⁰¹⁾이다. 그리스도의 세례 안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오직 하나의 세례만을 언급하고 있다.

2. 사도행전과 고전 12:13에 나타난 성령세례

성령세례 교리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포함하여 세계의 수 많은 교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교리의 신학적 기반이 견실하다는 본질적 이유 때문이라기 보다는 제 2의 성령세례를 주장하는 교파들에 나타나는 결과들—특히 선교와 교회부흥면에서—에

97) 누가복음 4:18-19.

98) Gaffin, op. cit., p. 44. 복음과 관련된 성령의 광범한 사역에 대해서는 John Owen, 이근수역, 개혁주의 성령론(The Holy Spirit: His Gift and Power)(서울: 여수론, 1988), p. 218-219를 보라.

99) Owen, op. cit., p. 31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나 성령의 위대한 사역은 그 목적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100) Green, op. cit., p. 43.

101) Ibid.

대한 현상학적 관심¹⁰²⁾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회구하는 거룩한 우리들의 관심이 저들의 부흥역사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계획이라고 가정할 때 그들의 눈물림은 마땅히 간파되고 묵인되어야 할 일일 수도 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나타난 대부흥의 역사현장으로의 회귀 본능(回歸本能)은 신실한 신자의 본질적인 욕구이며 동시에 주님에 대한 한 사랑의 표현행위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고전 12장과 특히 사도행전의 4본문만을 취급했는데 흔히 이 본문들이 성령세례를 제 2의 축복으로 간주하는 교회가 주로 의존하는 모범본문이기때 이 본문들에 대한 정확한 주경적 검토는 우리들이 성령세례 교리의 성경적 타당성을 분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1 2:1-39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세례

이미 구약과 4복음서에서 예언¹⁰³⁾된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약속대로 임했다.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다. 여기에 나타난 대로 성령세례의 조건은 심리적이지 아니라 지리적이며 영적이라기 보다는 공간적이다.¹⁰⁴⁾ 즉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의 기다림이다.¹⁰⁵⁾ 본문 4절에 사용된 단어 “기다리라 περιμενιν”은 사도행전의 전편으로 기록된 누가복음 결론부에서 사용된 “유하라, 앉으라 καθισατε”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노력이나 성령세례를 받을 조건을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4절을 조건문으로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것을 명하시면서 단순히 성령을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성령세례의 선포에 사용된 단어들은 성령의 성격을 은사로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세례는 기회나 혹은 신자의 특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4절)으로 불려지고 있다. 따라서 성령세례는 율법의 이름이 아니라 약속의 이름으로 오며 그래서 도전이 아니라 은사로 온다.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사실은 성령세례의 근원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준다.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Brunner는 지적하고 있다: “약속(επαγγελια)”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하나의 계통을 갖고 있다...그것은 보통 신약성경의 주요 맥락에서 은혜와 관련되어 있으며 노력과는 대조되는 것이다...그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예를 들어 오순절 이후 성령세례에 대하여 행한 베드로의 첫 설교(행 2:38-39)에 마찬가지로 풍부한 자매 단어인 “δωρεα”, 자유로운 선물이라는 말로 유지되고 있다...성령은 약속은...특히 아버지로 부터의 선물이며 그 선물은 가격이나 대가나 조건이 없는 자유로운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사도행전에 있는 성령에 관한 주요 귀절등에는—1:4(오순절 이전), 2:33(오순절), 2:38-39(오순절 후), 8:20(사마리아), 10:45(가이사라, 11:17), 19:2(에베소)—성령이 약속이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서

102) 박정근, 오순절신학(서울:복음출판사, 1978), p. 25에서 “반 듀센(Van Dusen)성령운동을 가리켜 기독교 ‘제 3의 세력’(The Third Force)이라 하였으며 뉴 비긴(New Bigin) 감독은 제 3 기독교(The Third Ecclesiology)라 하였거니와 성령혁명이야말로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이며 최종혁명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102) 이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승미교수의 논문 “성령으로의 세례”(고신대학교수 논문집 제 15집, 1987)를 참고하라.

104) Frederick Dale Brun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p. 156.

105) Ibid.

론에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은 결코 얻어지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행 8:19-20). 그는 항상 선물 즉 하나님의 영(靈)이다. 그러므로 누가는 그 책의 나머지에서 바로 이해해야 하는 성령의 이름을 사도행전 서두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의 약속이다.¹⁰⁶⁾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5절)고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신다. 여기에 약속된 성령의 주어짐의 방식을 말하는 βαπτισθησεσθε는 문법적으로 수동태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세례의 주체는 받는 자나 그의 노력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분이요 그의 의지(意志)라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 역시 자신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와 같은 성령세례의 자유로운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⁰⁷⁾

사도행전에 사용된 약속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약속 역시 수동적임을 알 수 있다: “너희는 위로 부터 능력을 입히울(ενδυνασθησε)때 까지 이 성에 유하라”(24:49). 누가복음에서의 성령의 약속은 인간적인 업적이나 심지어 영적인 업적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신의 은사이다. 그것은 “위로 부터” 즉,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데서 부터 인간에게 내려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약속의 마지막 말들조차도 은혜를 드러내는 말들이다. 그 약속은 제자들의 준비와 필연적인 관계없이 멀지않아—“몇 날이 못되어”—성취될 것이다.

“너희는 세례를 받으리라(βαπτισθησεσθε)”라는 단순미래 수동 직설법의 이 표준적 선언속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이외에 성령세례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언급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단순하게 모든 사람에게 예외나 구분이나 자격조건 없이 다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다(2:4, 19:6-7). 사도행전에는 어떤 신자도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약속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기록은 없다. 성령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오신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포괄적인 것이고 수동적인 것이며 서술적이고 단순한 미래이다.

흔히 사도행전의 주체귀절이라고 불리고 있는 1장 8절에서도 지금까지 고찰한 성령론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επελθοντος του αγιου πνευματος)이라는 표현은 가정법이나 명령법이 아닌 단순한 미래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인 εν υμιν(너희들 위에) 역시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수여자(受與者)를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며 받은 자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¹⁰⁸⁾을 의미한다. 즉 성령은 “위에” 오신다(επελθοντος)는 것이다. 성령은 위로 부터 “επι” 오시며 현대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령은 신의 선물이다. 전치사를 고찰해 볼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기원의 방향은 으로부터 ‘εκ’가 아니라 “위에”(επι)이며 그는 안으로 부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 부터”(눅 24:49)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성령은 받은 자의 감정적 혹은 영적 삶안에서 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내적 신앙상태의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성령은 위로 부터 즉 하나님으로 부터 임하는 것이다.

106) Brunner, op. cit., p. 157.

107) Martin Lloyd-Jones, Romans: The Sons of God—An Exposition of Chapter 8:5-17(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75), pp. 246-259.

108) Maximilian Zerwick, Biblical Greek(Rome: Biblical Institute, 1963), p. 89에서는 이것을 “Acts 1:8 ‘you shall receive the power has an aorist participle referring to future from the ‘absolute’ point of view(‘who will come upon you’)”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령이 그의 백성에게 임하면 그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λημψεσθε). 본문에서 이 권능은 권능 자체나 권능받는 자를 위한 목적보다는 더 높은 사명을 위한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εσεσθε μου μαρτυρες). 원래 “내”라는 단어가 그 위치상 강조형태로 나타나 있다. 증거의 대상은 은사나 권능이나 성령세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증인의 주체¹⁰⁹⁾이다. 사도들은 예수 그 분에게 속하고 예수 그 분의 증인들이다. 성령세례의 권능은 먼저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권능이다.¹¹⁰⁾ 이 사실은 성령의 능력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동사(εσεσθε—너희는 될 것이다)가 연계동사라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 1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세례의 권능을 받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나이다. 성령세례의 위대함은 성령세례가 인간과 승천하신 그리스도와와의 결합 자체¹¹¹⁾라고 하는 사실이다. 본문 8절에서 나타난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데 이 권능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이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성령세례의 능력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람들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결합시켜 주는 능력이다. 이보다 고귀한 축복은 없다.¹¹²⁾

이 약속과 그 권능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체적이지 선택적이지 않다. 이것은 성령 부으심이 조건적이지 아니라 은혜로운 것이라는 또 다른 표현방식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다.

성령이 임함으로써 사도들이 받은 그 권능은 사도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은 조금 뒤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도 나타난다(2:39).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¹¹³⁾ 자기 자신과 사람들—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해서—을 결합시켜 놓았다. 이것이 성령세례의 권능이요 영광이며 사명이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실 때에만 그들은 방금 승천하신 주님과 결합되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使役)과 구원(救援)이지 성령의 독립적인 제 2의 사역이 아니다. 성령세례의 권능은 그리스도 중심의 권능¹¹⁴⁾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점진적 확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금까지 유대민족에게 한정되어 있던 복음이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심지어 영적으로 불결하게 여겨졌던¹¹⁵⁾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성령을 통한 복음의 보편성과 무조건성

109) 요한복음 16:14.

110) Vine, op. cit., p. 89과 Churchill, op. cit., p. 44.

111) Churchill, op. cit., p. 44. “It is by the Holy Spirit that we are ‘in Christ’. And what exactly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this baptism is much greater than we thought it to be. It means that we are placed into such a living union with the Savior that we have every possible connection with Him, and Christ has every possible connection with us. It also means that this union, formed by the Spirit of God, is so vital that we are one with Jesus Christ is mentioned as being ‘crucified with Christ’, ‘buried with Him’, and ‘raised with Him.’ These events mark out in a definite way Christ’s saving work for us, and the Holy Spirit has vitally joined us to our Savior in His atoning work for sinners. But this, of course,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that we are in Christ. We are buried with Christ by baptism because baptism has united us to Christ. We united to Christ, especially in His saving work. Therefore we are buried with Him.”

112) Fife, op. cit., p. 95.

113) 고제수, 성령으로의 세례와 신자의 체험(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9), p. 35에서 “성령으로 세례주다란 말은 오순절날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위한 선물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거주시켜 주심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114) Op. cit., p. 33-34.

115) 사도행전 10:9-16에 나타난 보자기에 쌓인 불결한 짐승에 대한 환상을 처음 대했을 때 나타난 베드로의 반응이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을 제시하고 있다. Gaffin은 오순절의 성령은 “선교의 성령”¹¹⁶⁾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나타난 성령의 성격은 약속된 것이고 자유롭고 보편적이며 대상의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역사적인 선언으로써 시작되는 오순절은 조건성취의 결과로서 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역사와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역임을 지적하고 있다. “홀연히”(αφνω)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은 “하늘로 부터”(εκτουουρανου) 임한다. 그 약속이 갑자기 하늘로 부터 역사의 현장에 임할 때 교회의 기도 조차도 너무 근접해있거나 두드러져 보여서는 안되기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주관적인 의미할 수도 있는 단어 대신 “저희가 앉은”(ησαν καθημενοι) 이라는 평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며 “(저희)가 사람위에”(εφ' αναεκαστον αυτων) 임하였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성령이 오실 때에 부분적으로 와서 받는 자의 삶에 참여하고 의롭게 하셨다가 다시 떠난 뒤 그가 더 자격을 구비하고 보다 더 청결할 때에 다시 오시는 분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론의 또 다른 특징이다. 신자들에게 임하신 오순절 성령은 선택적이지 아닐 뿐 아니라 조건적이지도 않고 부분적인 것은 더욱 아니다. 성령은 한 인격으로서 그가 계시는 곳에 완전하게 또 충만이 오시며¹¹⁷⁾ 직접 내주(內住)하신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있다.

오순절 성령강림에서 특이한 것은 성령의 임하심과 더불어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성경에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교회의 체험속에 존재할 것이라는 그 어떤 언급도 없다. 또한 오순절에 모인 제자들이 이런 특별한 체험을 간구한 것으로 기록되지도 않았다. 적어도 누가가 사용한 단어들을 고찰할 때 오순절 사건이 “다른 방언으로 말”(행 2:4) 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오순절 사건에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주어진 방언에 의해 다양한 언어집단에 복음이 선포¹¹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본문뿐 아니라 앞으로 고찰하게 될 사도행전의 그 어떤 곳에서도 피수여자(彼授與者)편에서 방언을 간구하였다는 기록을 발견하지 못한다.

본 서의 저자 누가는 본 장에서 오순절 사건을 기록해 나가면서 오순절의 의미가 제자들의 내적인 영적 삶이나 심지어 성령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서 발견되어야 함을 강조¹¹⁹⁾하고 있다. 오순절에 있어서 핵심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영적인 황홀감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다.¹²⁰⁾

베드로는 방금 임한 오순절 성령강림을 자기 영(靈)을 모든 육체위에(επι)부어 주시리 하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지적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21절)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도는 오순절 성령강림을 하나의 독특한 개별적 사건으로 보다는 구약시대에 주어진 약속의 성취이며 특히 이를 구속사(historia salutis)의 한 종말론적 사건으로 파악¹²¹⁾하고 있다.

116) Gaffin, op. cit., p. 44.

117) Owen, op. cit., p. 88.

118) James D. G. Dunn, Jesus and The Spirit(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p. 155에서 “This experience they recognized as the impact of the Spirit of God, and therein they saw the hand of the risen Jesus drawing them together into living community and giving them both impulse and urgency to testify for him”이라고 말하고 있다.

119) Brunner, op. cit., p. 165.

120) Ibid.

121) Gaffin, op. cit., p. 25.

베드로의 12사도의 대표격¹²²⁾으로 행한 이 설교에서 강조된 것은 이 오순절 사건은 구속사적 사건들의 계열에 속하며 거기에는 고난, 죽음, 부활, 성령부어 주심이 그 중심이라는 사실이다.

요엘의 예언운동과 필적할 만한 베드로의 설교운동은 성령에게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하나의 성령운동이다. 이것은 능력이며 이것이 그의 직무이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¹²³⁾이다.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의 설교는 듣는 자들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 일으켰다. “우리가 어찌할꼬” 누우치는 청중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38절)라는 중요한 말로 대답하고 있다. 누가는 성령세례를 제2의 축복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현대교회에 이 한 귀절을 통하여 신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지 답변하고 있다.¹²⁴⁾

구원은 회개에서 부터 시작한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회개는 인간들의 오랫동안의 자의적 노력이나 내적 결단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한 성령님의 가능케 하시는 결단이다. 하나님은 회개를 주시고 인간은 거기에 응하여 이의 한 공적 표시인 세례로 나아가는 것이다.

베드로가 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다. 즉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와 친교를 맺게하고 그의 소유가 되게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선포에서 처럼 세례에서도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면 이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επιτω ονοματι Ιησου χριστου)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의 것이 된다는 것은 정의상 그의 영을 받는다¹²⁵⁾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죄의 용서와 성령의 선물 두 가지를 다 포함¹²⁶⁾하고 있다. 이 두가지 유익은 동일한 죄의 용서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구약성경의 약속과 일치한다: “내가 너희를 열국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에스겔 36:24-27).

이 본문 내용과 같이 성령을 받으려 하는 자가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 후에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다 이룬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받은 물 세례로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와 함께 성화케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성령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죄를 깨끗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용서가 성령의 은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και λημψεθε την δωρεαντου αγιου πνευματος). 여기서 성령의 은사는 세례와 함께 오며 용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며 그 죄사함에 약속된 것이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124) Fife, op. cit., p. 97에서 성령이 우리안에 계신 것을 모를 때는 행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절립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으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25) Gaffin, op. cit., p. 33. 이를 입증하는 성경본문은 고전 6:17, 롬 8:9, 행 1:8 등이다.

126) Brunner, op. cit., p. 167.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¹²⁷⁾에게 하신 것이라(38-39절). 모든 영적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인간의 준비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가 부르신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선물(δωρεα)로 주신다.

베드로가 성령의 표준적인 분어를 설명하면서 선물이라는 단어(δωρεα)를 사용한 것은 특히 중요하다. 베드로는 새로이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도록 명령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¹²⁸⁾ 세례를 베풀고 있다. 성령과 관련하여 기다리라는 명령은 오순절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 반복되지 않고 있다. 이 본문은 오순절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행되는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세례는 오순절이다.¹²⁹⁾ 오순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령의 은사이다. 오순절 이후에는 여기에서처럼 이 은사가 세례의 의식을 통해 용서와 함께 주어진다. 세례는 성령세례가 된다.¹³⁰⁾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대조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결합시킨다. 세례와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함께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 목적중의 하나이다.¹³¹⁾ 이것이 사도행전 8장과 19장과 특별교훈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죄의 용서는 항상 적극적인 성령의 은사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장에서 처음 성령세례가 언급된 이래 이 성령세례의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는 데 그것은 그 포괄적인 약속의 유일한 조건이 바로 주권적인 수여자인 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정의하기 위하여 누가 지금까지 사용한 용어들—동사(서술적, 수동적, 포괄적인 2인칭 복수), 명사(“약속”, “선물”), 또는 전치사(“위에”)—은 모두 성령의 자유롭고 순수한 은혜와 신적 근원을 지적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에 참여함으로써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 8: 4-24 사마리아에서의 성령세례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회개기사에는 세례까지 받았으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나타난다. 세례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한 이 특수한 사마리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마리아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사마리아는 주님이 복음 확장 지역들을 언급하시면서 유대교를 넘어서는 첫번째 지역으로 언급하신 곳이다. 사마리아는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깊은 간격이 개재되어 있던 지역으로 복음이 이제 유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땅 끝까지” 확장되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복되어야 할 지역이다.¹³²⁾ 이 사마리아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어떤 방해물도 존재 하지 않았다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촉발되는 곳이면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靈)의 역사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다른 곳에서도 같이 이 곳 사마리아에서도 아니라

127) Calvin, op. cit., p. 83. “Peter is not speaking of distance in terms of place but of the distinction between Jews and Gentiles.”

128) 마태복음 28: 18-20

129) Brunner, op. cit., p. 168.

130) Op. cit., p. 168-69.

131) Ibid.

132) 이승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계시된 성령사역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 교수논문집 제 15 집(1989), p. 32.

자유로운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기까지 사마리아성에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빌립의 사역이 완전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의 역할과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¹³³⁾하고자 하셨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더라도 사도들의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서 이 복음전송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그들은 주님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었다. 비록 나중에는 비사도(非使徒)들이 새로운 상황에 급파될 수 있긴 했어도 그러나 지금 비유대 세계에 처음 들어가려는 순간에 핵심 사도들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기도 및 안수를 성령의 은사와 연결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속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사도적 터전에 중요성을 높여 준다. 예루살렘밖에 있는 첫 교회가 전적으로 사도들의 접촉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만일 주님의 지상사역 불과 얼마 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도전승에 대한 무관심과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붕괴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문의 이 사건은 그 목적상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감의 벽을 생생하고도 가시적으로 와해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독특한 신적 간섭을 통하여 고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통일성이 잘 보조되었으므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¹³⁴⁾

은혜(恩惠)와 자유(自由) 그리고 보편성(普遍性)을 띤 복음은 사마리아 사건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¹³⁵⁾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은사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체 교회의 목전에서 조명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건 기록의 주 목적일 뿐 아니라 1장부터 15장의 지배적인 기록 목적이기도 하다.¹³⁶⁾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리라”(16절)에 암시되어 있듯이 사마리아 사건은 독특한 것이다.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그 귀절이 계속 암시하듯이 이상한 일이며 기독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모순이었다. 사실 누가는 사마리아에서의 이 사건이 전혀 전형적이라고 믿지 않았다.¹³⁷⁾ 이의 불가능성은 16절에 강조된 말 “ουδενω”(not yet)에서도 나타난다. 누가가 사마리아 신자들이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이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썼을 때 그 의미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기독교 세례가 완전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것의 일시적인 중단은 이 본문 이외의 다른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이며 이를 통해 초대교회 당시 세례와 성령의 연합은 하나의 인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불연속은 다음 절에서 즉시 연결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이 공백은 성령체험을 간구하는 자들 편에서의 자격구비와는 관계없이 채워지고 있다.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모든 주관적인 조건들에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새 언약시대에 성취된 성령은사와 필연적으로

133) Brunner, op. cit., p. 177에서 “The centrality of the apostles and the unity of the church—these are among the important lessons of Acts 8”라고 말하고 있다.

134) Ryrie, op. cit., p. 71에서 성령부으심이 지체된 이유를 두 개의 모교회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135) Brunner, op. cit., p. 177.

136) Ibid.

137) 이한수, 막스터너, 그리스도인과 성령(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2), p. 112.

연합된다는 것이다.¹³⁸⁾ 가장 편견이 작용하는 장소와 시기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전략적인 초기 선교과정속에서 중단이나 불일치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교회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단 한번 성령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유일한 예를 볼 수 있다. 성령의 은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이 기록은 중요하고 규범적인 세례 교리에 대해 신약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세례일 수 밖에 없으며 기독교 세례는 성령의 은사가 동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재수 교수는 본문 2:38-39에 근거하여 오순절날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고넬료의 경우(10, 11장)와 에베소 제자들의 경우(행 19장)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위의 경우들에서 우리가 받는 인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지만 약속된 메시야가 약속된 주님인 것을 몰랐다는 점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¹³⁹⁾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말했을 가능성은 오직 가정에 근거한 것이며 본문의 지지를 받지는 못한다. 만일 방언을 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누구나 초대교회의 신념이었다면 누가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를 이 사건의 마지막에 반드시 언급했어야 한다. 사실 누가 저술경향을 한 번쯤 고려한다면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세례가 순간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특이한 사건에서 성령의 유일한 첫 증거로서 방언교리가 분명히 가르쳐졌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점은 바울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⁴⁰⁾ 신약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본문이 성령의 증거로서의 방언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곳에서 해석자 역시 침묵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본문은 분명히 세례와 성령은사의 분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결합을 가르쳐주고 있다.

누가는 사마리아인들의 회개 기록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안수와 성령의 은사를 병행 처리했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17절). 그러나 마술사였던 시몬은 이를 자기나름의 등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23절). 이 본문은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며 실제로 성령 주제에 관한 유일한 부정적 교훈이다.

Brunner는 시몬의 결정적인 과오를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¹⁴¹⁾ 시몬의 과오는 보다 더 위대한 영적 권능을 소유하기 위하여 성령을 요구한 점과 이런 권

138) Op. cit., p. 195.

139) 고재수, op. cit., p. 34.

140)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에 나타난 분위기 역시 이런 교리가 바울의 교훈도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14:13-19).

141) Brunner, op. cit., p. 181-82.

능의 댓가로 값비싼 희생을 치를 계획을 가진 점이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내는 큰 권능에 깊은 인상을 받은 시몬에게 사도 베드로의 경고는 성령의 은사가 주는 권능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기를 원하며 또 감히 주려는 시도는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동시에 시몬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상당한 댓가를 치르려고 했다는 점이다. 베드로는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την δωρεαν του θεου)을 인간의 수단으로(δια χρηματων) 얻을(κτασθαι)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생각에 격분하고 있다.

값비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사를 획득하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된”(23절) 생각이다. 시몬이 사도시대나 사도후 시대 교회에 의해서 “모든 이단의 아버지”로 간주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시몬의 의도가 바울의 적(敵)인 고린도 교회의 신학으로 발전되었고 그 두 가지가 최근 오순절주의 신학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²⁾

마술사 시몬의 귀절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을 얻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므로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는 단지 받을 수만 있을 뿐이다.

성령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본 서 사도행전에 사용된 4단어(약속-επαγγελια, 선물-δωρεα, 주다-διδωμι, 받다-λαμβανω)는 이점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한 Brunner의 설명은 우리들의 성령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큰 지침을 주고 있다: “이 네 단어” 모두 성령을 조건적으로 이해하는 오류와 투쟁하고 있다.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 선물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획득하는 것이 아님) 신자들에게 주어진(단순히 제공된의 의미가 아님)완전한 자유로운 선물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대로, 적어도 네 가지 주요단어중 하나는 성령을 부여주심이 설명되어 있는 사도행전 모든 맥락속에 나타나 있다. 이 네 단어들이 성령이 임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든지 성령의 의미를 밝혀주기 위한 빛의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교회의 정신을 은총의 영역안에 있게 해준다. 그들의 빛 속에서 성령은 거룩해진다. 그것들은 다 함께 은총의 영역안에 있게 해준다. 그들의 빛 속에서 성령은 거룩해진다. 그것들은 다 함께 은총의 자유를 말한다. 그것들 앞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뛰어넘는 조건들을 통하여 대가로서 얻어진 획득물이라고 하는 생각은 있을 수 없다.¹⁴³⁾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본문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 곧,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으로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며 다만 인간들은 믿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하여 자유로운 은사로서 받을 뿐이다.

2-3 10:44-48 고넬료 가정의 성령세례

빌립이 성령에 이끌리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듯이 베드로 역시 성령에 이끌리어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나아간다. 그가 복음을 선포하고 임한다. 이 고넬료 이야기의 목적은 사마리아 사건처럼 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법적 규정에 대한 사람들의 준수여부와는 무관하게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자유롭게 주시므로써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교회에 가르치고 있다.¹⁴⁴⁾

142) Op. cit., p. 183.

143) Op. cit., p. 184.

144) 고재수, op. cit., p. 145.

이 고넬료 사건의 경우에서 성령임하심의 양상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은 특히 흥미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의 입교사건이 유대인의 입교 사건¹⁴⁵⁾ 못지않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결정적인 표적으로 오순절에 임한 그 방언이 사용되고 있다.¹⁴⁶⁾ 따라서 본문은 이 표적으로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들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44-46절).

방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이었으며 기이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의 경우처럼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도¹⁴⁷⁾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거기에 참석해 있는 가장 목이 곧은 사람¹⁴⁸⁾에게 조차 확신시켜 주었던 것이다.

오순절날처럼 여기서도 방언이 성령세례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의해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습적으로 온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방언이 나타나는 2장과 10장 두 경우 다 방언은 요청된 것이 아니고 예기치 못했던 것이며 요구되지 않았던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고넬료 가정의 경우는 제 2의 축복으로서의 성령세례론이나 조건부 성령세례론으로는 결코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다. 방언은 회개에 뒤이어 나타난 것도 아니요 방언사건 이전에 이미 충족된 조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회개와 성령의 오심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고넬료 기사에서 더욱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고넬료 가정의 경우처럼 세례를 받기 전 또는 세례 직후(19:5-6) 또는 세례와 함께(2:38) 을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순절에서 세워지고 사마리아 사건에서 극적으로 확증된(8:14-17) 세례와 성령의 밀접한 관계는 다시 여기 가이사라의 한 이방인 가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성령의 은사를 세례 이외의 다른 어떤 것과 관련시키는 것이 사도들에게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새로 믿은 자들은 즉시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¹⁴⁹⁾

우리 주님의 세례받으심으로 부터 교회의 일상적인 성령체험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은 성령의 오심을 세례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파악한 것이 분명하다.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세례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이 두 가지 즉, 기독교 세례와 성령의 은사는 동시에 나타나며 실제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성령세례를 함께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4 19:1-7 에베소지역 제자들과 성령세례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단의 이상한 제자들의 무리와 만난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이 무리들의 특이점은 비록 그들이 제자(μαθηται)¹⁵⁰⁾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45) H. C. G. Moule, *Person and Work of the Holy Spirit*(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77), p. 222에서 오순절과 고넬료가정에서의 사건은 역사적 및 대표적인 경우로서 이는 둘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참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46) Brunner, op. cit., p. 191.

147) Green, op. cit., p. 132, 134.

148) 누가는 특히 베드로를 수행한 자들을 “할례받은 신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베드로가 본 환상 역시 이방인에게 까지 구원이 확장되는 이 중대한 순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149) 고재수, op. cit., p. 34, 145.

150) 본문의 제자들이 어떤 분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지는 김순성, “사도행전 19:1-7에 나타난 성령내림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 대학원논문집, 1988(p. 27)과 고재수교수(p. 34)를 보라. 이들의 견해를 종합할 때 이 에베소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지만 약속된 메시야가 예수님인 것을 몰랐던 자들로 정의할 수 있다. Churchill 역시 그들을 비신자로 규정하고 있다(op. cit., p. 10).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요한의 세례만 받았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5절) 세례를 받지 못했다. 여기 또 다시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사마리아의 경우처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신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본문의 문맥에서 바울은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바울의 첫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바울에 의하면 믿음은 성령의 저장소이다. 믿음에 대해 현재분사가 아닌 단순과거분사를 사용한 것은 믿음이 세례에 현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¹⁾

바울이 성령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깨닫자마자 문제가 바로 세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던진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하는 질문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비정상적인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 요한의 이름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에베소 제자들에게 설명한 후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고넬료 사건 이후 모든 이방인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이 영원히 그들 가운데 내재하셨다.

바울과 그들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 그 중에서도 특히 바울의 질문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관건이 된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바울은 장황한 성령의 교리를 가르치는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3-5절).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이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놀랍게도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 여기에 핵심적인 교훈이 들어 있다. 성령을 거의 알지 못하거나 성령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체험을 위한 특별한 지식 또는 열렬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그러면서도 위대한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 두 가지이다.

바울은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궁금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다면 그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여기서 제 2 축복이나 물세례를 뛰어 넘는 영적 세례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성령세례의 첫 증거인 방언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그는 하나의 위대한 축복 곧,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난 바로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및 안수를 베풀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오순절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님이 임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가 바울의 전체 메시지였다.¹⁵²⁾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궁극적인 기독교 세례로 돌아가고 있다. 비록 성령의 주제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기독교의

151) Brunner, op. cit., p. 208.

152) Brunner, op. cit., p. 209.

핵심이나 주제가 아니라 그 결과이며 산물이다.¹⁵³⁾ 그리고 성령이 특별히 간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靈)이며 동시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영화롭게¹⁵⁴⁾ 하고 증거하기 위하여¹⁵⁵⁾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이다.

바울의 견해에 따르면 영적 세례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기독교 세례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재수 교수는 이 영적 세례를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성령으로의 세례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개개인 신자가 그의 신앙과 생활의 제 2 단계를 시작하는 표시적 체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령으로 세례주다’란 말은 오순절 날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위한 선물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거주시켜 주심을 의미한다. 이 일은 믿음의 즉각적인 결과인 것이다.”¹⁵⁶⁾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여태까지 제자들이 메시야를 믿으면서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본문 속에 깔려있는 문제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연결될 때만 신자들은 참된 신자로서의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였다. 이 믿음과 세례가 주어졌을 때 성령도 값없이(δωρεαν) 주어졌던 것이다.

믿음과 세례와 성령의 본질적인 연합에 대해 사도행전 19장 1-7절 만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은 없다. 아주 분명한 질문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성령이 어떻게 임하며 사도들의 생각속에 믿음과 세례와 성령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매우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결과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이며 성령세례가 곧 기독교 세례라고 하는 것이다.

2-5 고전 12:13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본 서 고전 12:13의 내용은 성격상 오순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은 행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서에서 강조되는 것은 “all”과 “one”의 대조이다.¹⁵⁷⁾ 고전 12장 전반부에서 사도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통일성(統一性)을 강조한 반면 후반부에서는 은사의 다양성(多樣性)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공통적인 성령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본 장 전반부에서 그는 3번 “한 성령”(9절하, 13상, 하), 3번 “같은 성령”(4절, 8절, 9절상) 그리고 한 번 “같은 한 성령”(11절)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성령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도는 자신의 결론을 13절에 내리고 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13절에 제시된 성령의 세례는 성도들을 분리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기 보다

는 성도들을 서로 연결하는 강력한 결합요소¹⁵⁸⁾라는 것이다. 성령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입시키는 수단이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명료하게 우리 모두가¹⁵⁹⁾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본문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란 표현은 요엘이 인종이나 지위의 구분없이 사용한 “모든 육체”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안의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교회전체, 몸 전체가 세례받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3절 하반절에서 “모두”란 말이 반복된 것을 보면 여기서 바울은 그 보편성(普遍性)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¹⁶⁰⁾ 몸의 통일(統一)은 성령(聖靈)의 통일(統一)¹⁶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일부 신자들의 후속적 경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과 동시에 누리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¹⁶²⁾

개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가입되는 순간에 누리는 이 성령의 축복에 대한 언급은 “eis”란 전치사 속에 나타나 있다. 이것을 Gaffi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성령세례의 경험은 각 지체가 한 몸 속으로 하나되어 들어가는 때 즉, 언약민 속에 구원적으로 포함되는 때에 일어난다...바울에게 있어서 구속적용의 기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실체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경험의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즉 생명을 주시는 성령과 연합되는 경험이다. 이 경험적 연합은 사죄를 가져올 뿐 만 아니라 새 생명 및 죄책과 오염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며, 또 이런 혜택들과 아울러 모든 다른 구원의 혜택들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준다...이런 구조로 제시된 13절 상반절의 요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험은 그가 오순절에 교회에 세례주었던 성령선물을 경험적으로 누리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 있다...성령세례는 그리스도의 단회적 사역의 모든 다른 측면과 같이 개개 신자가 교회, 즉 그의 성령세례 받은 몸속으로 연합되는 순간에 체험하는 것이다.”¹⁶³⁾

따라서 13절이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성령선물을 받았다는 것과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다. 본문에서도 성령세례가 단회적인 것이 입증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제 2의 성령세례가 있다고 가정할 때 성도는 제 2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터 들락날락해야 한다는 전혀 비성경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¹⁶⁴⁾

본문에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포함한 모든 세례의식에 내포된 4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본문은 전치사 “ev”으로 세례의 요소를 표시하고 있다. 성령세례와 관련하여 사용된 전치사는 신약에 나오는 7번 모두 이 “ev”이 사용되었으므로 여기서도 이 전치사를 동일한 도구격¹⁶⁵⁾으로 해석해야 한다. 성령의 세례는 예외없이 베풀어지는 보편적인 것이며 성령세례와 관련된 본문 들과 관련하여 검토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의 예언처럼 유일한 “세례베푸시는 자”이시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머리위에¹⁶⁶⁾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은 세례의 요소 “ev evi pneuμαti”이시며 이 세례는 “eis ev soma”

158) Stott, op. cit., p. 39.

159) Kuyper, op. cit., p. 218에서 오순절 사건에서 성도는 개인자격이 아닌 유기적 단인체로서 성령을 받아 서로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몸안에 연합되었다고 지적한다.

160) Gaffin, op. cit., p. 33.

161) 에베소서 4:4.

162) Stott, op. cit., p. 39.

163) Gaffin, op. cit., p. 34.

164) Charles C. Ryrie, op. cit., p. 77.

165) Donald Macleod, 지상우역, 성령세례와 개혁주의 성령론(The Spirit of Promise)(서울: 여수론, 1988), p. 22에서 성령님 자신은 세례를 베풀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였다.

166) 요한일서 2:20, 27.

153) Op. cit., p. 210.

154) 요한복음 16:14.

155) 요한복음 15:26.

156) 고재수, op. cit., p. 35.

157) Gaffin, op. cit., p. 32.

한 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세례와 관련된 7번의 진술 가운데 세례의 다른 요소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도 세례의 요소에 대한 언급은 항상 나타난다. “εν ενι πνευματι”으로 예외없이 반복되는 이 귀절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이 세례의 요소임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고전 12:13에 언급된 세례의 요소 역시 다른 복음서의 주장과 동일한 성령님일 수 밖에 없으며¹⁶⁷⁾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¹⁶⁸⁾ 본 13절에서 우리가 마시는 것은 성령님이며 우리에게 성령을 마시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심¹⁶⁹⁾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세례에 동참케 되고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 한 성령을 마시는 것은 병행체로서 이는 한 번 주어진 과거의 사건을 의미한다.¹⁷⁰⁾ 모든 성도는 회개시에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였다. Green은 이 두 비유들의 의미를 복합시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두 같이 성령의 바다에 빠져들어 모두가 다 그의 생명수로 인하여 그들의 갈증나는 생명들을 축였다.”¹⁷¹⁾ 이 두 동사의 부정과거시제는 오순절 사건이 아니라 회개시에 모든 성도 개인이 받은 축복을 분명히 암시하는 말로 파악되어야 한다.¹⁷²⁾ 본 고전 12:13 역시 성령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본문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가입하는 순간에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받는 것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요한의 예언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세례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 가까이 다가 오시는 것이다.

3. 성령으로 세례베푸심 - 특성(特性)

성도의 삶은 한 마디로 바울의 말처럼 “성열을 쫓아”¹⁷³⁾ 행하는 삶이다. 크리스트찬이 되는 첫 과정 자체가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¹⁷⁴⁾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율법의 지배영역으로 부터 성령의 지배영역으로 이전되었으며¹⁷⁵⁾ 이후 계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전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개인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것이 중생이요 이 중생은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성령은 생명의 영(靈)¹⁷⁶⁾이시기에 이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며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¹⁷⁷⁾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것이며 또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양자의 영¹⁷⁸⁾을 우

167) RSV번역은 이 점에서 다소 애매하다. 동일한 전치사를 가지고 유독 이 본문에서만 RSV는 “in” 대신 “by”로 번역하여 혼선을 주고 있다.

168) Stott, op. cit., p. 42.

169) 요한복음 7:37이하

170) 최갑중, 예수·교회·성령: 누가와 바울의 성령론에 관한 연구(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2), p. 121.

171) Macleod, op. cit., p. 22-23에서 재인용

172) Stott, op. cit., p. 42.

173) 갈라디아서 5:16.

174) 최갑중, op. cit., p. 111.

175) Cranfield, The Epistle to the Romans (Edinburgh: T. & T. Clark Limited, 1990), p. 376.

176) 로마서 8:4.

177) Owen, op. cit., p. 126.

178) 로마서 8:15.

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바울은 이점에 대하여 갈라디아 4:6에서 “너희가 아들이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14-15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증명하고 있다. 이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¹⁷⁹⁾ 따라서 아들이 아닌 자가 영을 소유했다거나 영을 소유하지 않고 아들이 된다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시키신다.¹⁸⁰⁾ 위에서 인용한 로마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8:16)라고 계속되고 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을 알게 된다. 바울은 단적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8:9)고 결론지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과 “성령 안에” 또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과 “너희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서로 동의어인 것을 알 수 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곧 주님이 영으로 임하신 것¹⁸¹⁾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령님의 임재없이는 그리스도의 임재¹⁸²⁾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성령세례 문제를 언급할 때 반드시 주의할 사항은 호크마의 지적처럼 삼위 하나님의 불리 불가능성이다.¹⁸³⁾ 이러한 사실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과 특히 최후만찬시에 하신 주님의 말씀에 명료하게 드러난다.¹⁸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안에 거처를 잡으신 주님은 우리의 몸을 그의 전¹⁸⁵⁾으로 삼으시고 성화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은 절제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¹⁸⁶⁾

이처럼 성령께서는 개인에게 역사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시켜 성도의 교체가 “성령의 교제”¹⁸⁷⁾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가 성령으로 하는 봉사¹⁸⁸⁾가 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은사를 주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케 하신다.¹⁸⁹⁾ 그분은 또한 “우리 기업의 보증”¹⁹⁰⁾으로서 그분의 내주는 천국에 대한 보장이며 천국에 대한 예비적 음미(吟味)가 된다*.

그분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¹⁹¹⁾ 이처럼 성도의 존재양식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존하고 있으며 오웬의 지적처럼 하나님의 은

179) Stott, op. cit., p. 19-21.

180) Lloyd-Jones 역시 성령론(서울: 새순출판사, 1986), pp. 120-127에서 성령세례의 의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강한 확신을 들고 있다.

181) Coleman, op. cit., p. 68.

182) Ryrie, op. cit., p. 68.

183) Hoekema, Holy Spirit Baptism(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1975), p. 27 그리고 Owen, op. cit., p. 163.

184) 요한복음 14:18-23, 16:7-8등

185) 고린도전서 3:16.

186) 갈라디아 5:16-25

187) 빌립보서 2:1

188) 빌립보서 3:3

189) 에베소서 4:12

190) 에베소서 1:14

191) 로마서 8:11

해사역은 전부 “우리에게 주신”¹⁹²⁾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다.¹⁹³⁾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to interpret each Scripture in the light of all Scripture)* 한다는 개혁주의 성경 해석원리에 입각하여 본문 해석시 문맥을 반드시 살펴야 하며 가급적 포괄적 문맥에서 해석을 도출해야 한다.

성령세례의 의미를 규정지으려 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이 구약예언이 핵심인 성령오심의 신약적 성취¹⁹⁴⁾로서 전적으로 신약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예언은 자신의 영(靈)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며 오순절에 행한 자신의 설교에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예언과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 베푸심에 대한 약속을 특별히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령부어주심”과 “성령세례”는 같은 사건이며 동일한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¹⁹⁵⁾

3-1 새 언약시대의 한 특징으로서의 성령세례

이상에서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의 세례가 신약시대의 한 현저한 특징임¹⁹⁶⁾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으셨다는 말과는 다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나 구약의 성령님은 필요시 개인에게 임하셨다가 경우에 따라 그로부터 떠나기도 하시는 분¹⁹⁷⁾이었으며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특정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조금만 주셨을 따름¹⁹⁸⁾이며 그 사역은 잠정적이었을 따름이다*. Ryrie의 말처럼 성령으로 세례베푸시는 사역은 구약에는 결코 언급되어 있지 않다.¹⁹⁹⁾

그러나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성도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실 메시야의 날을 예언하고 있었다. 이사야서에는 “위로 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²⁰⁰⁾과 하나님이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릴”²⁰¹⁾것을 예언했고 에스겔은 동일한 표현으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줄 알리라…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서 쏟았음이니라”²⁰²⁾고 했으며 요엘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²⁰³⁾을 예언하고 있다.

옛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요한은 구약이 예언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메시야의 특징적 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²⁰⁴⁾ 새 복음서에서 단순미래형으로 기록된 요한의 이 예언이

192) 로마서 5:5에서는 “δοθεντος ημιν”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를 Cranfield, op.cit., p. 263는 “by the Holy Spirit who has been to us…The proof that our hop will not disappoint us in the end is the fact of the amazing generosity of God’s love for us—a fact which we have been enabled to know and understand by the gift of His Spirit to us”라고 지적하고 있다.

193) Owen, op. cit., p. 167.

194) Owen, op. cit., p. 29.

195) Stott, op. cit., p. 25.

196) Owen, op. cit., p. 159에서 주님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시면서 놀라운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7) 시편 51:11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간구나 사울왕이나 삼손의 경우

198) Owen, op. cit., p. 88.

199) Ryrie, op. cit., p. 76.

200) 이사야 32:15.

201) 이사야 44:3

202) 에스겔 39:28, 29

203) 요엘 2:28-29

204) 마가복음 1:8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는 현재분사꼴 “ο βαπτίζων”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이 용법은 무시간적 표현으로써²⁰⁵⁾ 이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오순절에 단회적 사건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한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지칭한 “ο βαπτίζων”은 마가가 세례요한을 지칭할 때 사용한 용어이기도 하다. 물로 세례주는 것이 요한의 사역의 한 특징이었기에 그가 세례요한으로 불린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베푸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한 중요한 특징이었기에 주님이 세례베푸시는 분으로 지칭되는 것은 당연하다.

성령베푸시는 것으로 특징지워지는 예수님의 사역은 동일한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외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란 말속에 나타난 또 다른 현재분사 “ο αἴρων”과 결부시켜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2가지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제거(除去)와 수여(授興) 곧, 죄의 죄거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심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두 가지 큰 선물이다. 이 두 선물은 상호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 강조된 내용이다. 에스겔 선지를 통해 하나님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²⁰⁶⁾고 약속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 약속은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시대의 두 가지 축복과 동일하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²⁰⁷⁾

구약이 말하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정²⁰⁸⁾되었으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제 성도는 “새 언약의 일군”(고후 3:6)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과거에 적용되던 “의문의 직분”이나 “정죄의 직분”에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요 이제 “의의 직분”과 “영의 직분”에 속한 자가 되었다.²⁰⁹⁾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죄사함과 성령선물이었다.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성령의 선물은 곧 “약속하신 성령”이며 “성령의 세례”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인 “성령부어주심”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다양한 표현들을 John Stott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We could sum it up by saying that these penitent believers received the gift of the Spirit which God had promised before the Day of Pentecost, and were thus baptized with the Spirit whom God poured out on the Day of Pentecost”²¹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예루살렘교회에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세례와 선물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²¹¹⁾

이러한 성경의 용례를 통해 성령의 세례²¹²⁾는 성령의 약속 또는 선물과 같은 것으로, 또 성령의 세례는 죄의 용서와 더불어 복음이 한 핵심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구원을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누어 볼 때²¹³⁾ 죄의 용서는 소극적 의미의 구

205) Stott, op. cit., p. 23.

206) 에스겔 36:25-27

207) 예레미야 31:31-34

208) 마태복음 26:26-28

209) 고린도후서 3:6-9

210) Stott, op. cit., p. 25.

211) 사도행전 11:16, 17

212) 최갑중, op. cit., p. 36-37.

213) Douglas, op. cit., p. 106.

원이 표방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주시는 것은 구원의 적극적 형태이다. 중생시부터 적극적으로 사역하시는 성령님의 내주로 인해 성도는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죄인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디모서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3:5)이란 유사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님은 분명히 구원의 한 적극적 요소로 규정되어야 하며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소개된 새 시대의 특징적 축복의 하나임을 성경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3-2 보편적 축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서의 성령세례

성령의 부으심이 새 시대의 두드러진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외없이 다 누릴 수 있는 한 보편적 특권²¹⁴⁾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성령부으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궁극적 의미라는 사실에서 이것은 분명하다. 요엘의 예언과 베드로의 인식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요엘의 예언은 성령선물의 보편성에 강조점이 있다. 베드로 역시 요엘 예언의 특징을 보편성에서 파악하였다: “말세의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행 2:17).

성령의 선물은 남, 여의 구분이나 나이, 신분,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자에게, 심지어 그들의 자녀와 모든 먼 곳의 이방인에게 까지²¹⁵⁾ 미칠 것이다. 성(性)의 구분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이방인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은 예외없이 그들 모두에게 각각 주어질 것이다. 구약시대 성도들 역시 중생한 자들인 것은 사실이나 성령은 특별한 때에 특수한 사역을 위해 선택된 소수에게만 임하셨으며 경우에 따라서 철수 가능했다. 그러나 새 시대에 이르러 성령님의 사역은 전보다 더 광범위해지고 깊어졌다. 성령님의 포괄적 사역으로 인해 구약시대와는 달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그들의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그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님의 심층적 사역으로 인하여 구약성도들의 신지식(神知識)과 중생의 경험 이상의 경험,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내주(內住)가 실재(實在)²¹⁶⁾하게 된 것이다.²¹⁷⁾

성령의 선물이 모든 믿는 자에게 베풀어질 것이란 요엘선지의 예언을 찢림받는 회중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38-39)고 권면²¹⁸⁾하고 있다. 베드로는 요엘의 약속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

214) Gaffin, op. cit., p. 44.

215) 사도행전 2:39

216) Ryrie, op. cit., p. 44.

217) Gaffin, op. cit., p. 41.

218) Fife, op. cit., p. 97.

219) Owen, op. cit., p. 162-163에서 “성령안에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사역과 모임에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위격을 대표하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거하지 않는 것을 보충한다...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더 유의되고 더 이익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영적 임재가 우리에게 더 낫고, 더 편리하다...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위격을 대신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위를 대신한 것과 똑같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맡아서 성취해야 할 모든 것에 대하여 역사하시고 또한 완수하신다. 왜냐하면 성자의 사역은 자신의 일이 아닌 오히려 그를 보내신 성부의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역도 성령 자신의 일이 아닌 성령을 보내신 성자의 일을 하며 성령은 성자의 이름으로 일을 수행하시기 때문이다.”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일하게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을 받기 때문이다.

3-3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으로서의 성령세례

새 언약시대에 임한 성령부으심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사역²¹⁹⁾이라는 점이 우리의 주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핵심적 특징이다. 개편은 그리스도의 사역 핵심을 오순절 사건에서 파악²²⁰⁾하였다. 성령의 핵심적 사역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²²¹⁾인 만큼 새 언약시대에 임한 성령선물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²²²⁾되어 있다. 오순절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는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의 설교는 한 마디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²²³⁾이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및 승천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 예수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도다 하나님이 오른 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행 2:33). 성령은 성부가 약속하신 성령이요²²⁴⁾ 따라서 구약시대에 대망하던 약속성취의 핵심*인데 이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획기적, 절정적 사건들, 특히 부활 및 승천과 직결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성령을 부으신 이 사건은 여러 사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구속사(救贖史)의 핵심²²⁵⁾이요 구속사(救贖史)의 마지막 사건이다.²²⁶⁾ 성령부으심은 이런 여러가지 사건들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 사건들은 단회적(單回的)인 사건들이면서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의 사건(事件)이 없이는 이 후의 다른 사건(事件)들도 있을 수 없다.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의 오심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직접 연결시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7:39)라는 본문에서 사용된 영광의 의미는 그 후 자신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곧 바로 이를 썩어질 밀알 개념으로 풀이하시는 대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²²⁷⁾ 이 대목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령오심이 전제조건²²⁸⁾임을 지적하고 있다.

바울은 부활(復活)을 상세하게 다룬 고전 15장에서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靈)”²²⁹⁾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동일시하고 있다. 바울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 즉, 두번째 사람으로서 부활(復活), 승천(昇天)하심으로 성령을 영원히 또 완전히 소유하셨으므로 그리스도와 성령은 그 사역에 있어서 동일시된다는 것이다.²³⁰⁾ 죽음과 부활, 성령강림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속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靈)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셨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위격을 대표하며²³¹⁾ 육체로 계실 때에 제한 받으셨던 시(時), 공(空)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여

220) Gaffin, op. cit., p. 23-24.

221) 요한복음 16:13

222) Gaffin, op. cit., p. 23-24.

223) 박형룡, 주해 사도행전-교회확장의 원리(서울:성광문화사, 1988). p. 65-70.

224) 사도행전 1:4.

225) Gaffin, op. cit., p. 22.

226) Kuyper, op. cit., p. 182.

227) 요한복음 12:23-25.

228) Fife, op. cit., p. 74.

229) 고린도전서 15:45

230) Coleman, op. cit., p. 68.

231) Owen, op. cit., p. 162.

이제 이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보혜사로서²³²⁾ 영적으로 임재하시게 된 것이다.²³³⁾ 이처럼 오순절 사건 이후 그리스도와 성령은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종말적 사역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개편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성령선물은 교회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과 승귀를 통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선물(성령세례, 성령강림)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정적 성취이다. 그것은 승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오신 것으로 의미한다. 그것은 구원의 단회적 완성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구속 역사의 절정이다. 그것 없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클라이막스에 이른 구속 사역이 미완성 내지 불완전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²³⁴⁾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代贖)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赦)하신 이후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세가 레위기를 기록²³⁵⁾한 이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 쯤에 지켜졌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기로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누리는 축제의 날로 유월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월절이 없었다면 오순절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만일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부으심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십자가 고난없이 오순절은 불가능했을 것이며²³⁶⁾ 오순절없이 십자가 고난은 하나의 지나친 사치²³⁷⁾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처럼 성령세례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역사의 지평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4. 오순절주의의 “성령세례”-재조명(再照明)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것이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바람이 생명력이 약해진 교회에 어떤 새로운 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우리들의 촉각은 곤두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전 세계에 열풍처럼 불어닥쳐 수 많은 사람들을 환희케 하고 뜨겁게 하였던 오순절파의 열정은 지금도 계속 타오르고 있다.²³⁸⁾ 그들의 예배는 생동감이 있고 열정이 있다. 또한 평신도와 교역자의 벽이 그다지 두텁지 않고 누구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 초대교회의 유형을 닮아 있다.²³⁹⁾ 오순절주의에는 지나치게 교파를 구분하지 않는 자유함²⁴⁰⁾이 있다. 성령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없는 자에게 구제하기를 즐겨하는 초대교회의 한 면을 그들에게서 볼 수 있다.

232) 요한일서 2:1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παρακλητος라고 지적하고 있다.

233) Coleman, op. cit., p. 22.

234) Gaffin, op. cit., p. 22.

235) 레위기 23:15-21.

236) Erdman, op. cit., p. 69에서 그는 “Pentecost, or the ‘fiftieth day’ was counted from the Sabbath of Passover week: and, true to the symbolism, the cross and the empty tomb must precede the opening skies and the Pentecostal gift”라고 지적하고 있다.

237) Fife, op. cit., p. 76.

238) 1992. 11. 7일을 전후하여 국민일보에서는 수차례 지난 9월 13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세계 126국에 3천만 성도로 구성된 세계 하나님의 성회의 1만여명의 교역자가 모여 개최된 “세계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조다윗목사가 총재로 피선된 것을 축하하는 기사가 실리고 있다.

239)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원형을 파악하고 초대교회로의 회복(回復)을 자신들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240) Fife, op. cit., p. 173.

이런 오순절주의 교회들의 열정은 현대교회의 경직성과 확연한 대조²⁴¹⁾를 이룬다. 오순절운동이 결국 현대교회의 생동감 결여에 대한 한 반동²⁴²⁾으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오순절신학을 평가함에 있어서 먼저 겸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순절운동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첫 사랑을 잃었는지 확인하고 속히 첫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오순절주의자의 시선을 등 뒤에 의식하면서 가급적 오순절주의의 장점을 현대교회에 회복시키려는 염원을 한 번도 잃지 않았다. 따라서 오순절주의가 주장하는 “성령세례” 문제에 대한 성경적 검증은 시기적절한 것이었다. 필자는 간절히 오순절주의의 열정이 개혁교회에 강하게 불어닥치기를 바란다. 평신도들이 각자받은 은사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껏 사역²⁴³⁾하는 그런 자유가 정말 좋다.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 논문을 집필하면서 필자는 오순절주의의 심각한 취약점을 발견하였다. 그 취약점은 사소한 데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것, 그들이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주장하는 데서 드러났다.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성령세례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²⁴⁴⁾이다. 성령세례 받지 못한 신자를 제2급으로 분류하는 그들의 견해에 대해 Campbell Morgan은 그들의 과오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성령세례란 용어는 널리 오해되어 왔으며 그 결과 잘못 사용되어 왔다. 이 말이 성령충만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온 결과 일부의 사람들은 성령세례를 제2의 축복을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이 성령세례를 회심과는 다른, 또 회심 이후의 어떤 것으로 보고 이를 얻기 위해 간구하며 기다리고,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²⁴⁵⁾

성령세례란 용어의 고수는 그리스도안의 형제들을 심하게 분리시키는 사탄의 책략이라고 까지 Fife는 주장하고 있다.²⁴⁶⁾ 성령세례에 대한 심각한 오해로 인해 오순절주의의 최대결함인 교육부재 현상이 나타난다.²⁴⁷⁾ 오직 성령세례만이 성숙의 기준이다. 이 판정에 합격할 시 다른 사항들은 전분 불문에 붙여진다. 뜨거운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제 자리를 찾게 된 것은 좋으나 일부 오순절주의 교회 성도는 찬양과 간증만이 반복되는 가운데 진지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받지 못한 채 예배를 마치는 경우가 있다.

말씀선포가 본연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오순절주의의 취약점은 자연스럽게 체험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나타난다. 교육보다는 개인의 간증을, 성경진리보다는 개인의 영적 체험을 더 중요시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신비한 분²⁴⁸⁾으로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영적 체험은 반드시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만일 특별한 체험을

241) 박정근, op. cit., p. 20에서 “오순절 운동이란 기독교의 위대한 제3세력이지만 실은 첫째가 되는 세력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의 성령강림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교회는 오순절의 순수성을 잃고 그 대신 영적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현대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그 필요성에 부흥하여 일어난 운동이 바로 웨슬레의 부흥운동을 비롯한 각종 부흥운동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보다 훨씬 더 새롭고 다이나믹한 부흥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즉 요엘 선지가 예언한 늦은 비 성령운동, 익은 곡식을 거두는 마지막 추수기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42) Stott, op. cit., p. 13과 Kuyper, op. cit., p. 115.

243) 에베소서 4:11-12에 교회내 직분자들의 역할이 잘 나타나 있다. 본문에 따르면 교회의 직분들은 성도를 온전케 훈련하여 그들이 봉사의 직무를 수행키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244) Macleod, op. cit., p. 28f에서 성령세례를 주장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다.

245) Fife, op. cit., p. 96에서 재인용.

246) Op. cit., p. 97.

247) Op. cit., p. 177.

248) Kuyper, op. cit., p. 6.

한 자가 자신의 신앙성숙도와는 무관하게 교회의 공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교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²⁴⁹⁾

영적 체험과 더불어 오순절신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에큐메니칼운동은 한편 교리와 신학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²⁵⁰⁾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영적 체험이 강조되고 이의 부작용으로 교리가 무시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²⁵¹⁾ 가르침은 무시된 채 방언이나, 치유, 축귀(逐鬼)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분명히 성경의 교훈과는 거리가 멀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세례를 제 2의 축복이란 경험적 의의에서 다분히 기독교론적이며 교회론적인 의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²⁵²⁾ 가르침과 교육의 부재로 인해 그들의 성경 해석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신학의 실종현상은 자연히 체험에의 강조로, 특별히 성경에서 기독교론보다는 희미하게 제시된 성령론²⁵³⁾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나타나게 되었다.

오순절주의의 성령론은 삼위일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파생된 것²⁵⁴⁾이기에 개혁교회에서 결코 수납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이의 한 표시로 받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은 완전하게 임재하신다.²⁵⁵⁾

중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성령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오순절주의의 신학은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의 동시 연합없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인 삼위일체 신학과는 모순되게 이 두 인격을 분리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²⁵⁶⁾ 오순절날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영²⁵⁷⁾으로 임재하심으로써 그분의 임재는 동시에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인 것이다.²⁵⁸⁾ 사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채우고 계셨던 자리를 주님의 실재(實在)로서 불가시적으로 채우고 계시는 것이다.²⁵⁹⁾

이처럼 오순절주의는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완전한 관계에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는 신학²⁶⁰⁾이며 삼위일체를 분리시키는 신학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베푸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기 위함이 그 목적인 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써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세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은 교회론의 완전 실종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해도 제 2의 축복인 성령세례를 받지 못한 경우를 가정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충족하심에 대한 주지²⁶¹⁾라고 Green은 지적하고 있다.²⁶²⁾

또한 일부 오순절주의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으로 전래되어 온 예배용 찬송가로 부티의

249) 디모데전서 3:6

250) Fife, op. cit., p. 180.

251) 디모데후서 3:16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252) Gaffin, op. cit., p. 31.

253) Kuyper, op. cit., p. 6.

254) Macleod, op. cit., p. 23.

255) 고린도전서 3:16

256) Macleod, p. 23-24.

257) 고린도전서 15:45

258) 에베소서 3:16-19, Owen, op. cit., p. 161-163에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보충하시는 분이라고 하였다.

259) Coleman, op. cit., p. 68.

260) Hoekema, op. cit., p. 12 & Gaffin, op. cit., p. 20.

261) 로마서 8:32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반문하고 계신다.

262) Green, op. cit., p. 138.

이탈현상 역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²⁶³⁾

성령님에 대한 지나친 관심²⁶⁴⁾은 그들이 유행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비둘기 표지에서 나타나는데²⁶⁵⁾ 이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 16:14)는 주님의 말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오순절주의 신학은 이처럼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과는 새 언약시대의 한 특징으로서 또한 보편적인 현상으로서의 세례베푸심을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특수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제 2의 축복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III. 결 론(結論)

구약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새 시대의 특징은 한 마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함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위에 “임”하심으로 성취된다. 이 새 시대는 복음전파를 통한 축복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새 언약시대를 성령의 축복시대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불세례를 친히 감당하신다. 구약이 제시하는 성령축복이 실제(實在)하는 새 언약시대는 죄의 용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난받는 중으로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친히 감당하신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세례”를 통하여 그분은 세례 베푸시는 분(ο βαπτίζω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며 성경은 성령세례와 관련하여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세례베푸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성도는 회개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하여 죄의 용서와 함께 성령의 선물을 주님으로 부터 받게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단강 수세(受洗) 사건과 또한 이의 한 실제적(實際的) 성취(成就)로서의 갈보리 십자가(十字架)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의 세례는 단순한 의식만이 아닌 성령베푸심이 실제(實際)하는 참 세례가 되었다.

성경은 성령으로 세례베푸심을 예수님의 고난이후에 이루어질 구속사(救贖史)의 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베푸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후에 이루어질 구속사(救贖史)의 한 절정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유월절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벌어지는 오순절 축제는 유월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오순절은 유월절과의 연장선상에서만 이해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승귀이후 오순절에 살려주는 영(靈)으로 오신 것이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세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과는 달리 시(時), 공간(空間)을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다가오신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된 구속사(救贖史)의

263) Fife, op. cit., p. 181.

264) Owen, op. cit., p. 138에서 성령세례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시라고 강조하고 있다.

265) 필자는 한 때 기승을 떨던 이단의 집회소 위에 십자가 대신 두 개의 감람나무 잎사귀에 둘러싸인 비둘기 모습의 표지를 보는 순간 안타까움과 함께 역겨움을 느꼈다.

한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마리아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의 성령임하심은 행 1:8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복음 확장과 관련된 교회의 통일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 유대인과는 깊은 단절이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이나 또는 구원과는 무관한 집단으로 이해되었던 이방인 지역으로의 복음 확장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유대인에게 임했던 오순절사건과 동일한 현상의 성령체험을 허락하시되 사도들의 주관아래 이 일을 섭리하심으로써 세계로 뻗어나갈 주님의 몸된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시키셨다.

에베소 제자들의 경우 그들은 성령세례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닌 요한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를 받았기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예로서 나타나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듯이 성령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하다.

세례베푸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사실이 고전 12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본문은 또한 성령세례의 목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매 연합시키는 것이며 연합되는 순간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분리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한 자는 곧 성령님을 모신 것이며 성령님을 모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의 삶안에 모신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허락하셨다.

이와같이 성령베푸심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이며 이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시대에 특징이자 새 언약시대의 모든 믿는 자에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이 믿는 순간에 보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 고 도 서

1. 국 내 서

- 고재수, 성령으로서 세례와 신자의 체험,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김세운,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참말, 1993.
 박영신, 성령론, 서울: 크리스찬서적, 1989.
 박정근, 오순절신학, 서울: 복음출판사, 1978.
 박형룡, 주해 사도행전-교회확장의 원리, 서울: 성광문화사, 1988.
 안영복, 성령론의 바른 이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육한흠, 현대교회와 성령운동, 서울: 엘마오, 1986.
 이인한, 신자와 성령, 서울: 아성출판사, 1976.
 _____, 오순절과 성령의 세례, 서울: 은혜출판사, 1979.
 이재범, 구약이 말하고 있는 성경, 서울: 임마누엘출판사, 1988.
 이한수, 막스터너, 그리스도인과 성령,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2.
 최갑중, 예수·교회·성령: 누가와 바울의 성령론에 관한 연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2. 번 역 서

- Gaffin, Richard, *Perspective on Pentecost*. 권성수역, 성령은사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Macleod, Donald, *The Spirit of Promise*. 지상우역, 성령세례와 개혁주의 성령론, 서울: 여수론, 1988.
 Maier, Paul, *First Christmas: Pentecost and Spread of Christianity*. 이현주역, 오순절의 배경과 신비, 서울: 컨콜디아사, 1987.
 Owen, John, *The Holy Spirit: His Gift and Power*, 이근수역, 개혁주의 성령론, 서울: 여수론, 1988.
 Walvoord, John F., *The Holy Spirit*, 이동원역, 성령,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3. 논 문

- 고재수, "성령으로서의 세례를 지적하는 본문들에 대한 주석적 고찰", 고신대학 교수논문집(제 15 집), 1987.
 김순성, "사도행전 19:1-7에 나타난 성령내림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원논문, 1988.
 김영경, "오순절운동과 성령세례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신학대학원졸업논문, 1983.
 이승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계시된 성령사역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 교수논문집(제 17 집), 1989.
 _____, "성령으로서의 세례", 고신대학 교수논문집(제 15 집), 1987.

4. 국 외 서

- Brunner, Frederick Dale, A Theology of Holy Spirit, Grand Rapids : Eerdmans Printing Company, 1986.
- Coleman, Robert E.,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Old Tappan : Fleming H. Revell Comany, 1988.
- Cranfield, C. E. B., The Epistle to the Romans, ICC : Edinburgh :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pose, 1973.
- Dale, James W., ΒΑΠΤΙΣΜΟΝ : Classic Baptism, Phillipsburg : P & R Publishing Company, 1989.
- ., ΒΑΠΤΙΣΜΟΝ : Judaic Baptism, Phillipsburg : P & R Publishing Company, 1991.
- Dunn, James D. G., Jesus and the Spirit,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6.
- Erdman, Charles R., The Spirit of Christ, New York : George H. oran ompany, 1926.
- Fee, Gordon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 :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 Fife, Eric S., The Holy Spirit : Common Sense and the Bible,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 Graaf, S. G. De, Promise and Deliverance, Ontario : Paideia Press, 1981.
- Green, Michael, Baptism : Its Purpose, Practice & Power, Dow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1987.
- ., I Believe in the Holy pirit,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 Hoekema, A. A., Holy Spirit Baptism,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 ., Tongues and Spirit-Baptism : A Biblical and Theological Evaluation,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1.
- Kuyper, Abraham, The Work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 W 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
- Lloyd Jones, D. M., Romans : The Sons of God-Exposition of Chapter 8 : 5-17, London : Banner of Truth Trust, 1975.
- Moule, H. C. G., Person and Work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 Kregel Publications, 1977.
- Murray, John, Christian Baptism, Phillipsburg :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 1980.
- Peck, John,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The Holy Spirit, Wheaton : Tyndale House Publishers, 1979.
- Ryrie, Charles C., The Holy Spirit, Chicago : Moody Press, 1965.
- Stott, John R. W., Baptism & Fulness :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oday, Illinois : Inter Varsity Press, 1975.
- Torrey, R. A., The Holy Spirit-Who He Is and What He Does, London : Fkeming H. Revell Company.
- Unger, Merrill F., The Baptism & Gifts of The Holy Spirit, Chicago : Moody Press, 1974.

5. 사 전 류

- Douglas, J. D., et al, New Bible Dictionary, Wheaton : Inter Varsity Press, 1987.
- Richards, Lawrence O., Expositiry Dictionary of The Bible Words, Grand Rapids : zonde rvan Publishing House, 1985.
- Tenney, Merrill C., Pictorial Bible Dictionary,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 use, 1967.
- Vine, W. E., The Expanded Vine's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atment Words Mi nneapolis : Bethany House Publusers, 1984.

6. 문 법 서

- Zerwick, Maximilan, Biblical Greek, Rome :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79.

7. 성 경

- NOVUM TESTAMENT GRAECE, Nestle - Aland